

전북대 제우스팀 대상 차지

전북현대 스포츠 마케팅 공모전 당선작 발표

전북현대 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전북지역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포츠 마케팅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다.

지난해 '제1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북현대에는 이러한 성과가 모두 팬들 덕분에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며, 상금을 환원하고자 스포츠 마케팅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전라북도 출신 및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이번 공모전은 심사 마감일인 지난달 22일까지 무려 50여 편의 다양하고 참신한 작품들이 접수 되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전북구단은 4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당선작 5편을 결정했다. 세미 시즌권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고, 1994 버스의 심층 분석을 통한 홍보 강화, 동아리 축구 활성화를 위한 특강 교실 등 다양한 방법의 마케팅과 구단 자생력 강화 아이디어를 제시한 전북대학교 제우스팀(전재원, 윤승현, 강주은)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스포츠 과학과팀(이준우, 전동주, 강소희)과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의 페달리팀(김도현, 김보성)이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또한 전북대학교 팀 오오웰레(김정균, 임혜인)와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김태호 학생이 우수상에 선정되며 당선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철근 단장은 "공모작들을 보면서 학생들의 열정에 많이 놀랐으며 '한편의' 논문을 보는 것 같았고 참여해준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



을 잘 활용해 팬들에게 더 다가서는 전북현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의지를 전했다. 대상 팀에게는 150만원, 최우수 2팀에게는 각 100만원, 우수상 2

팀에게는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수상하고, 수상자 전원에게 전북현대 기념품을 지급 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도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추진위 마지막 회의

전라북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태)가 28일(금) 마지막 회의를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그 임무를 끝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립총회 개최와 법인설립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임원 구성에 대한 심의를 했다. 지난 1월 20일 구성돼 활동을 진행한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정관, 회원종목 및 시·군체육회 규정, 임원심의회 규정, 종목등급분류, 조직 구성, 해산 및 청산에 관한사항 등 통합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해왔다.

통합위의 위원장의 역할을 맡았던 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우리 도는 원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타 시·도에 모범을 보이는 원만한 통합을 이루어 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롭게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의지를 밝히며 회의를 마쳤다.

/김민근기자

“류준열 일베 아니다” 소속사 강경대응 예고

주변 지인들도 나서 "절대 그런 친구 아니다"

배우 류준열(30)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4일 "류준열은 일베 유저가 아니다"라는 해명과 함께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그런데도 논란이 계속되자 류준열의 지인들이 나섰다. 자신들이 아는 류준열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오해로 낙인을 찍지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류준열이 극우 지역감정 조작 사이트 일베스트저장소(일베) 연루 논란에 휩싸인 것은 4~5개월 전 자신의 SNS에 올린 일베 등판 사진 때문이다.

"엄마 두부 심부름 가는 길"이라는 글을 지목, 일부 누리꾼들이 류준열을 일베로 의심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인인 '두부 외상'으로 알려진 후 일베에서 질벽과 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단어로 통하고 있다. '소셜코피아'에서 류준열이 연기한 B '양계' 캐릭터를 문제 삼는 이도 있다. 홍 감독은 "괜히 레퍼런스 따를 엉뚱한 사람으로 추측하는 바람에 슬데없는 불씨를 심은 셈"이라며 "나한테 돌을 던져주세요"라며 자책하기도 했다.

류준열은 지인들의 호소에 앞서 직접 자신의 SNS에 해명글을 올렸다. "저는 일베가 결코 아니고 일베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두부라는 단어를 쓰게 된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지인이 등반을 하는 사진에 '출근하러 가는 길'이라고 적은 내용을 재밌게 보았다. 저도 (등산하며) 사진을 많이 찍었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지인의 표현을 빌려 글을 썼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두부와 콩나물 심부름을 가끔 했었기 때문에 두부라는 것은 심부름 내용의 일부였다."

그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저의 일베 해명 기사에 언급되는 것도 속상하다"며 "괜 여러분께 저를 좋아해주시는 마음이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과분하게 받고 있는 큰 사랑, 그 마음에 보답하도록 항상 사랑하고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는 좋은 배우로 활동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류준열 20년지기는' "이번 사건은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서 준열에게 얘기하고 나뉠 해명 글을 올렸다"면서 "준열이 절대 그런 친구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떠나서 20년간 거의 매일같이 봐온 형제나 다름없는 '류준열'이라는 친구는 절대로 고인을 비하하거나 희롱하는 그런 친구가 아닐뿐더러 그랬다면 저와도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홍하늘 프로듀서는 질벽 사진과 글로 촉발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포스트와 사진 등의 연관성은 이전 (류준열이)



공개했던 내용 등을 보면 오해가 불식될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영화를 찍으며) 몇몇 B를 모델로 삼아 연습하기도 했고 각종 커뮤니티도 찾아보며 관련 기사를 뒤졌는데 특정 B의 언급이 나오는 지점 이 때문인 것 같다"며 "일베 가입 아이디라고 하는 지점은 다른 이가 고의로 류준열의 이메일로 가입해 인증 메일이 막

류준열의 메일로 넘어온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편 소속사는 류준열의 아이디를 도용한 네티즌과 일베설을 최초로 유포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여러 사이트에 게재한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진수기자

마마무 첫 번째 정규앨범 'Melting' 은 귀 사로잡아

그룹 '마마무'가 지난 28일 발매한 첫 번째 정규앨범 '멜팅(Melting)'으로 "역시 마마무"라는 수식어를 입증한다. 지난해 두 번째 미니앨범 '핑크 핑키의 타이틀곡 '음오아 예'로 음원차트 1위를 휩쓰는 등 '대박'이 나면서 대세 걸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후 8개월 동안 바짝 준비한 첫 정규앨범은 '음오아예'의 성공에 따른 부담감을 넘어 솔직한 마마무만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다.

더 예뻐진 멤버들의 귀여운 춤사위와 윙 윙 떨어지는 곡의 분위기, 한 편의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가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솔직한 멤버들의 이야기를 가사에 담은 '고향어', 팝 성향이 강한 청량한 미디엄 템포의 '이모션(Emotion)',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 보사노바 풍의 '우리끼리', 가수 정기교와 쥘레 버라이어티 한 '금요일밤' 등 12개의 장르를 넘나드는 12곡이 실렸다.

/인진수기자

그룹 갯세븐 내달 21일 새미니앨범 발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갯세븐은 3월21일 새 미니앨범 '플라이트 로그: 디파처 (FLIGHT LOG: DEPARTURE)'를 발매한다.

29일 트랙리스트를 시작으로 컴백 티저 포토, 뮤직비디오 티저, 앨범 스폐일러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4월 29, 30 일에는 첫 단독 콘서트도 예정됐다.

박진영의 JYP가 '2PM' 이후 6년 만인 2014년 선보인 갯세븐은 지난해 '니가 하면'으로 가요방송 1위를 차지하는 등 점차 인기를 쌓아가고 있다.

같은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인위어 V차트 시상식'에서 '한국 최고 남자그룹 신인상'과 '올해의 최고 앨범상'을 받았다.

/인진수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광복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광복을 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